**미숙 씨**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콘텐츠

20171211 김유나

2019. 12.18 제출

**➔ 배경은 11월 말 초겨울입니다.**

**# Prologue / 용산역 광장**

한 여성의 손이 펼쳐져 있다. 거칠어 보이는 손. 구걸하는 듯한 모양. ***(close up)***

추운 날씨에 그 손은 한껏 빨개져 있다. 그 손 뒤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입김에 손이 잠시 가려진다. 입김이 사라지고 두 손은 포개져 있다. 언뜻 보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타이틀 등장-*

**미숙씨**

**# 001 / 용산역 광장 / 아침 8시 ~ 9시**

진미숙. 용산역 광장에서 구걸을 한다. 때가 탄 야상점퍼에 발목이 보이는 여름바지를 입고 박스위에 앉아있다. 손을 뻗고 고개를 숙여 구걸하는 진미숙.

그녀의 두 팔 사이에 자리한 얼굴. 무표정이다. ***(low angle)***

광장을 빠르게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은 미숙에게 아주 잠시 머물 뿐 발걸음은 역을 향한다.

시간이 흐르고, 진미숙의 손은 새빨개져 있다. 미숙은 빨개진 손을 꿋꿋이 들고 있다.

그때, 누군가 미숙의 손을 발로 찬다. 툭툭. 진미숙은 고개를 든다.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 ***(low angle)***

남자노숙자 아줌마. 누가 여기서 앵벌[[1]](#footnote-1)하래? 엄연히 임자가 있는데..~

진미숙 (손을 털고 옷에 닦으며) 여기 제가 아침 댓바람부터 나와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노숙자 나도 여기 자릿세 내고 하는 거라고~

빨리 나와요..~!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래????

미숙이 버티자 남자 노숙자의 손이 올라간다. 눈을 부릅떠 남자를 쳐다보는 미숙. 미숙의 눈밑살이 파르르 떨린다.

**# 002 / 광장 주변 벤치 / 아침**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진 작은 담배를 줍는 손. 진미숙이다.

작은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다. ***(입 close up) > (얼굴 close up)***

진미숙은 뺏긴 광장 자리에서 한껏 몸을 숙여 구걸하는 남자 노숙자를 응시한다.

담배를 다 피고 벤치에 앉는다. 동시에 벤치 앞 바닥에 세워진 삼다수 통을 담배로 때려 쓰러트린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뚜껑이 열린 빨간 유성 매직이 있다. 유성 매직을 벤치 위에서 이리저리 굴리던 미숙. 삼다수 병에 담배를 담고 병 뚜껑 밑에 빨간 줄을 긋는다. 잘 나오지 않는 펜 때문에 여러 번 겹쳐 그린다. ***(NA: 빨간선, 딱 빨간선까지만 이 선만 넘으면 난 사라질거야)***

삼다수 병을 흔들며 하늘을 바라보는 진미숙. 가래가 들끓어 침을 캬악 퉤! 뱉는데, 미숙의 얼굴로 떨어진다.

**# 003 / 용산역 광장 / 점심**

용산역 광장 무료급식소에 온 허미숙. 급식소 현수막에 적힌 삼일교회와 함께 하는 따뜻한 밥한끼. 이곳엔 급식을 받기 위해 많은 노숙자들이 줄 지었다.

줄의 대부분은 남자, 여성 노숙자도 보인다. 반짝이는 블라우스에, 코르덴치마를 입고, 가죽 닳은 단화를 꺾어 신었다. 방울 토마토를 손에 들고 먹으며 광장의 줄 주변을 거닐던 허미숙.

썩은 토마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한 남자(40대 중 후반으로 보임)에게 토마토 국물이 튄다.

허미숙 (외투를 쓱 닦아주며) 죄송해요.

외투를 쓱 닦는데 남자에게서 나는 술냄새에 살짝 찡그린다.

남자 (혀가 꼬인 말투로) 이게 얼마 짜린데. 그거 뭐야..세탁비!

허미숙 드릴 돈이 없어요..죄송해ㅇ

남자 그게 사과야????그게 어떻게 사과가 돼!!

남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광장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그들을 쳐다본다.

미숙의 입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사과하는 눈은 강렬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 사과를 요구해봐라 어디 까지도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말하는 듯 지독하다.

허미숙의 강렬한 눈빛이 진미숙의 눈으로 바뀐다. 허미숙의 화려한 옷차림이 진미숙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허미숙은 다른 곳을 보며 욕하는 남성노숙자를 지나치고 진미숙의 시선은 그런 허미숙을 따라간다. 허미숙를 보며 길에 떨어진 담배를 피던 진미숙의 오른쪽 눈 밑이 파르르 떨린다.

***(얼굴 정면 close up)***

**# 004 / 회상씬 / 진미숙의 집**

(회색 빛 화면) – 과거

한 남성에게 머리채가 잡혀 좌우로 흔들리다 옆으로 밀쳐지는 진미숙. 역의 기차가 쌩 출발하는 타이밍과 맛물려 현재로 돌아온다.

**# 005 / 용산역 광장 / 점심**

잠시 얼굴을 일그러뜨리지만 금방 무표정을 짓는 진미숙.

무료급식 도우미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이 미숙에게서 술 취한 남자를 떨어뜨린다. 곧 미숙과 도우미는 진미숙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다.

**# 006 / 용산역 지하차도 / 저녁**

지하차도에 비치는 주황색 불빛위로 연기가 피어 오른다. 연기 끝을 따라가면 손을 호호 불고 있는 진미숙의 모습이 주황색 불빛위로 비친다. 아직 지나가는 차는 없다.

그 때, 방울 토마토가 툭 굴러 진미숙의 오른쪽 발을 친다. 진미숙은 토마토를 손에 쥐고 오른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는 허미숙이 쭈구려 앉아있다. 진미숙은 그녀를 알아본 듯 눈썹을 올린다. 이내 허미숙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그 남자는 광장에서 진미숙의 자리를 뺏은 남성 노숙자이다. 진미숙은 둘의 대화를 들으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대화 소리가 끊긴다. 자동차가 지나간 직후 다음 자동차가 오기 전 들리는 몇몇 단어들. ‘4만원’, ‘따뜻한 방’. 앉아 있는 허미숙에게 치대는 남성 노숙자의 모습이 진미숙의 시야에 들어온다. 이내 허미숙은 낮에 시비를 걸던 노숙자 무리의 한 남자를 따라간다. 허미숙과 남성 노숙자가 빠져나간 오른쪽 터널을 응시하는 진미숙.

**# 007 / 동자동 쪽방촌의 한 방 / 저녁**

2평 남짓 되는 어두운 방안 티비, 밥솥, 옷 등 각종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방에 허미숙과 남성이 섹스를 하고 있다. 아무 감정 없는 듯한 섹스. 무표정의 허미숙은 그저 눈을 천천히 깜박거린다. 네 번째로 깜박거린 순간 방의 불이 환해진다.

**# 008 / 쪽방촌의 일대 / 아침**

아침이 되자 허미숙은 쪽방에서 나온다. 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돈을 꺼내고 침을 발라 바르게 편다. 돈을 들고 언덕을 터벅터벅 내려오는 허미숙. 언덕을 내려오다 편의점에 들어간다. 진라면 작은 컵 1+1을 사서 한 컵을 그 자리에 서 먹는다. 만찬을 먹는 듯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나머지 한 컵을 들고 편의점을 나간다.

**# 009 / 용산역 공중 화장실 / 아침**

허미숙이 살짝 눈치를 보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다. 곧장 창고로가 숨겨 놓은 이마트 카트에 나머지 라면 한 컵을 카트에 집어넣는다. 그리곤 거울 앞에 선다. 머리를 잘 다듬으며 이리저리 얼굴을 돌려 보는 허미숙. 물을 살짝 묻혀 눈곱도 떼고, 나간다.

한편, 진미숙은 화장실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 칸에 울려 퍼지는 진미숙의 꼬르륵 소리.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열려 있는 창고에서 카트를 보고 들어간다. 생라면을 허겁지겁 먹는 진미숙.

**# 010 / 용산역 공중 화장실 /**

허미숙은 창고에서 라면이 없어 진 것을 알아챈다.

진미숙은 또 다시 카트에 가서 옷가지를 챙긴다.

다음날, 진미숙은 카트에서 라면을 또 하나 챙겨 간다.

**# 011 / 용산역 부근 횡단보도 앞 / 아침**

출근길로 복잡한 횡단보도 앞.

(거어억- 트림하는 소리와 함께 - 담배가 담긴 삼다수 물병 익스트림 클로즈업)

진미숙이 병안에 담배를 툭 넣는데, 다시 꺼내서 담배를 꾹 눌러 담는다.

진미숙의 바로 옆 사람(직장인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은 삼다수 물병을 따서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

**# 012 / 용산역 광장 / 낮**

북적거리는 삼일교회 무료 급식소. 무료 급식줄을 기웃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허미숙의 모습. 줄에서 한 여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데, 고개를 돌린 여자는 다른 여성 노숙자이다.

무료급식 도우미 (S#.05 등장인) (나긋나긋하게) 밥드시러 오셨어요~!?

진미숙 예?..? 아니요..

무료급식 도우미 따뜻한 국물 있어요. 날도 추운데 드시고 가세요.~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줄로 들어가는 진미숙.

**# 013 / 삼일교회 예배당 / 새벽**

새벽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예배당 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허미숙은 종소리에 눈을 뜬다.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당 의자에 앉는다. 주변 신도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차분히 기도하는 사람 가지 각색이다. (신성한 성가대 음악이 잔잔하게 깔린다) 곁눈질로 주변 신도들을 살펴보며 손을 모으고, 입을 조그맣 게 벙긋 벌리며 중얼거리며 기도한다.

**# 014 / 용산역 대합실 / 저녁**

진미숙은 아주 짧아진 담배를 삼다수 병 뚜껑 바로 밑에 넣는다. 뚜껑을 닫는 것도 힘겨워진 물병.

자칫 병 아래를 누르면 담배가 울컥 튀어나올 것만 같다. 진미숙은 대합실에 있는 큰 거울(몸집의 3~4배 사이즈)의 끄트머리의 서 있다. 꼬질꼬질한 행색. 얼굴을 양 옆으로 돌려보기도하고, 옷 냄새를 킁킁 맡는다.

**# 015 / 삼일교회 앞 / 저녁**

삼일교회 건물의 정면을 바라보는 진미숙. ***(low angle-full shot)***

고개를 뒤로 젖혀 탑 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Na: 나의 마지막은 깨끗하길 바랬다. 그 누구보다)***

**# 016 / 삼일교회 화장실 / 저녁**

아주 작은 정사각형 거울 (얼굴이 들어가면 여백이 거의 없는)에 살짝 김이 살짝 서려있다. 진미숙은 손가락으로 눈, 코, 입 부분을 뽀득뽀득 지운다. 어떤 멜로디를 작게 흥얼거린다. 거울 속으로 보이는 눈, 코, 입.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 보인다. 세면대에서는 김나는 뜨끈한 물이 졸졸 나오고 미숙은 손에 물을 받아 얼굴을 깨끗하게 닦는다. (카트에서 훔친 흰 옷변기) 옷을 갈아입은 진미숙. 변기에 올라 목을 매달려는 순간, 문이 탁 열린다.

진미숙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허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마침 문 앞에 있던 삼다수 병을 쳐 담배가 바닥에 쏟아진다. 바닥에 담배로 가득 찬 그 때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한다. 진미숙은 변기에서 내려와

바닥에 흩어진 담배를 손을 쓸어 담는다. 어리둥절한 허미숙. 잠시 화장실을 둘러보다 진미숙을 돕는다.

계속 노크해도 나오질 않자 노크소리가 잦아든다. 둘은 바닥에 있는 담배를 빠르게 치우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문을 열고 나간다.

진미숙 (멋쩍은 표정) 감사합니다..

허미숙 (살짝 목례한다) 네

서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둘.

*(진미숙 NA: 찾았다)*

둘은 각자 길을 가려다 동시에 서로에게 말을 걸게 된다.

진미숙 옷을 왜 그렇게..

허미숙 저기 …!

허미숙 예?

진미숙 옷이 참 화려해요.

**# 016 / 삼일교회 마당 / 저녁**

허미숙과 진미숙은 교회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다. 허미숙은 진미숙을 바라보고, 진미숙은 담배 찌꺼기가 묻어 있는 삼다수 물통을 바라본다. 허미숙은 자살을 하는 진미숙에게 과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허미숙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

허미숙 방울 토마토를 키워보세요.

진미숙 네..??

허미숙은 점퍼 안에서 부시럭 부시럭 방울 토마토 씨앗이 담긴 봉지를 꺼내 진미숙에게 건넨다.

진미숙 (다시 건네며) 괜찮아요..

허미숙 (손에 쥐어주며) 지구에 남기는 흔적.

진미숙 ……?

뒤돌아 가버리는 허미숙. 진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지하차도에서 봤던 뒷모습과 겹쳐 보인다. 고개를 갸우뚱 하는 진미숙.

**# 017 / 삼일교회 텃밭 / 낮**

부추가 심어져 있는 텃밭 끝 푸르게 익어가는 방울 토마토 묘목 2개. 허미숙은 묘묙을 요리조리 살펴본다. 진미숙의 시선은 허미숙에게 놓여있다.

허미숙 금방 익어요. 생각 보다 더. 참고해요.

붉은 기가 살짝 섞여 있는 토마토 몇 개를 따서 가는 허미숙. 진미숙은 씨만 대충 몇 개 뿌리고 흙으로 덮어 놓는다. 귀찮아 보이는 진미숙. 묘목을 바라 보다가 주위를 살피고 하나를 따서 먹어본다.

진미숙 아우 써. 퉤

(뱉은 토마토를 흙에 쓱쓱 덮으며) *(NA: 이상한 여자다. 생각 보다 더)*

**# 018 / 지하철 / 초저녁**

지하철에 앉아있는 진미숙. 이번 역은 용산, 용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온다.

**# 019 / 지하철 철도 / 초저녁**

지하철이 철도에 멈추고 4-1 칸에서 진미숙만 내린다.

‘소요산 행 연결 문제로 인해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역 안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는 미숙만, 철도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진미숙은 반대편 에스컬레이터 토마토 주스를 먹는 아이를 바라본다.

**# 020 /용산역 지하차도 / 초저녁**

삼일교회로 걸어가던 진미숙은, 또 다시 누군가를 따라가는 허미숙을 목격한다. 진미숙은 허미숙을 보고 그녀의 뒤를 쫓는다.

**# 021 / 쪽방촌 갈래길 / 저녁**

진미숙은 복잡한 쪽방촌 갈림길에서 허미숙을 놓쳤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가려다 한 골목으로 들어선다.

다 쓰러져 가는 집들 사이로 지나가며 열심히 빨래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술을 사 갖고 들어가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본다. 호기심 넘치는 표정의 진미숙.

그렇게 언덕에서 내려오던 중 칼 바람이 쌩 불고, 날려오는 종이들. 허미숙은 그 종이를 실수로 밟는다. 종이에는 쪽방촌의 재개발로 인해 갑작스레 쫓겨나는 주민들의 항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골목에서 한 남자 진미숙에게 소리친다.

쪽방촌 남자 아주머니! 뭐해요~ 빨리 들어와요~!

**# 021 / 쪽방 / 저녁**

얼떨결에 진미숙은 한 쪽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엔 3~4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그림과 글을 쓰고 있다.

진미숙 (손목을 잡은 손을 놓으며) 아니 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깐요

진미숙은 결국 다시 앉아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은근히 집중하는 듯 보이는 진미숙.

진미숙 (그림을 따라 그리며) 이렇게요..?

여자주민 그렇지. 하여튼 절대 못나가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든가. 아니 죽긴 왜 죽어!

추운 복도에 서서 이것저것 돕는 사람들을 보는 진미숙.

**# 022 / 텃밭 / 밤**

진미숙은 담배를 모아둔 병을 비우고 깨끗이 씻고, 물을 채워 어두운 밤 달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토마토 씨앗에 물을 준다.

**# 023 / 삼일교회 예배당 / 새벽**

예배당 구석에서 몸을 뉘였던 진미숙은 새벽기도 찬양소리에 깨서 몸을 일으킨다. 그녀의 앞에는 허미숙이 앉아있다. 서툴지만 찬양을 따라하는 허미숙.

기도시간 허미숙은 간절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울먹거린다. 진미숙은 그런 허미숙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처음엔 놀란 듯한 표정이지만 이내 관찰하는 듯 하다. (배경음악으로 찬양이 깔린다)

**# 024 / 텃밭 / 아침**

진미숙이 심은 묘목에 새싹이 자라 있다. 진미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 텃밭 땅을 파헤쳐보지만 정말로 뿌리가 있고 새싹이 자라났다.

진미숙 (새싹을 다시 덮어주며) 넌 물만 먹어도 살아지는구나?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진미숙. 이때 허미숙이 진미숙에게 다가온다.

허미숙은 자신의 토마토를 하나 따먹으며 쭈구려 앉아 있는 진미숙의 등에 대고 말한다.

허미숙 달로 가는 건 미룬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허미숙 생각 보다 더 말 수가 없는 스타일이야.

허미숙의 말을 끝내며 돌아서려는데, 진미숙이 말한다.

진미숙 열매는...! 언제쯤 열리는 거예요?

**# 025/ 용산역 기차레일 / 낮**

용산역 기차 레일을 내려다보는 두 미숙의 얼굴. (low angle)

빈 철길에 잠시 뛰어든 허미숙은 역사의 바닥과 자신의 허리 쪽을 손바닥으로 체크해본다.

허미숙 고작 요 만한 걸 못 뛰었지. 내가

진미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허미숙 (다시 역사로 올라오려 발을 건다) 근데 참 쉽지 않다니까요?

진미숙은 허미숙을 역사 쪽으로 끌어올려주며 말한다.

진미숙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닐 까요? 여기서 내려가면 절대 못 돌아오겠다 그런 게 없어서?

**#026 / 용산역 옆 코레일 건물 옥상 / 낮**

건물 옥상 모서리 끝에 진미숙이 서있다. 아슬아슬 금방 떨어질 듯 서있는 진미숙. 의연한듯 살짝 두려워 보이는 표정 다리를 밖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 밑으로 보이는 전경은 아찔하다.

진미숙 레일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허미숙은 진미숙의 뒤에서 바닥에 일자로 누워 방울 토마토를 먹으며 말한다.

허미숙 (토마토를 머금고) 구게 무제야 (=그게 문제야)

(다 씹고 삼킨 후) 생각보다 전경이 좋아요.

진미숙은 허미숙의 말이 웃기다는 듯, 살짝 웃으며 옥상 모서리에서 내려와 옥상에 기댄다.

허미숙 (하늘을 응시하며) 올라와서 보니 눈물이 다 났어요.

진미숙 (허미숙을 바라보며) 눈물 날 정도로 좋던가요?

허미숙은 옥상 모서리로 올라 간다.

허미숙 뛸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레일을 막 ~ 보는데.. 사람들이 저 레일타고 막~ 다들 어디로 가는게 보이더라고요. 나만 갈 데가 없어. 뭐 그래서 못 뛰었어요. 내가 저 레일에 떨어지면, 나 황천길 가자고 다른 사람 길도 막는 셈이더라고.

진미숙: 아니..! 레일로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027 /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계단 / 초저녁**

용산역 맞은 편,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옥상 문 앞 계단. 허미숙과 진미숙은 걸어서 올라온 듯 살짝 숨이 차 보인다. 허미숙은 앞장 서 옥상문을 열어본다. 하지만 옥상 문은 굳게 잠겨 있다.

계단에 있는 창문 2개에 한 명씩 서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용산역을 바라보며 대화한다. 창 밖은 핑크색 황혼빛이 가득하다. 진미숙 숨을 한 번 크게 고른다.

진미숙 엘리베이터 놔두고,,후 ,,왜

허미숙 (방울 토마토 하나를 건네며) 떨어질 땐 너무 금방 이잖아요.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텐데 뭐

진미숙 이거 하나 먹었다고 좀 낫네요..근데 왜 이렇게 방울 토마토를 먹는 거예요?

허미숙은 가발을 벗는다. 창문에 숏컷 머리의 허미숙의 모습이 비치자 진미숙은 살짝 놀라 옆을 돌아본다. 놀란 표정을 살짝 숨기고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본다.

허미숙 (가발을 탁탁 털며) 겨울에도 땀이 나네..

(타이타닉 포즈를 취하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옥상에 딱 섰는데 갈증이 너무 심해서

숨이 턱 막혔어요….그때..이상하게 역 뒤에 공원 흙에 뱉었던 방울토마토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끔 가서 물도 주고 그랬었는데.

진미숙이 고개를 돌려 허미숙을 바라본다.

허미숙 그렇게 막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탐스럽게, 빨갛게 익어 있는 거야.

**#028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계단 / 저녁**

진미숙이 아파트 입구에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다.

(장면전환) 계단을 꾸역꾸역 올라가는 미숙. ***(NA: 그 날 이후 그녀는 살기로 했다고 한다.)***

**#029 /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옥상**

옥상문을 열어보는데, 열려 있다. 들어가는 진미숙. 옥상문을 열고 옥상 끝에 서 본다.

그곳에 서서 레일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미숙. 흥얼거리는 미숙 ((S#14) 에서 흥얼거린 멜로디)

**#030/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계단 / 저녁**

진미숙은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다. (사운드는 흥얼거리는 소리그대로 유지)

***(NA: 이상하다.)***

**#031 / 삼일교회 작은 방 / 저녁**

따뜻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진미숙. 허미숙은 가발과 옷이 엉망이 된 상태로 들어온다.

가발을 빗으로 곱게 빗는 허미숙. 옆에 앉아있던 진미숙. 진미숙은 카트에서 훔친 옷을 허미숙에게 건넨다. 허미숙은 살짝 웃으며 옷을 받는다. 허미숙을 바라보는 진미숙. ***(NA: 정말이지 그녀는 살고 있었다.)***

**#032 / 삼일교회 텃밭 / 아침**

다음 날 아침, 텃밭의 방울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진미숙의 주머니에는 물이 가득 담긴 삼다수 병이 있다. 방울 토마토를 가만히 바라보던 진미숙은 냉큼 몇 개를 딴다.

**#033/ 삼일교회 주변 도로변 / 아침**

교회 밖으로 향하던 허미숙에게 달려가 등을 툭툭 친다. 진미숙 역시 짐을 챙겨 나왔다.

진미숙 (토마토를 건네며) 저는 미숙입니다. 진미숙

허미숙 (웃음을 띄며) 토마토가 잘 익었네요

진미숙 덕분에요. 저 이제 교회 안 와요.

허미숙 내 이름도 미숙이에요. 허미숙. 신기하네요

진미숙 정말요.

허미숙 어디로 가요 이제?

**#034 / 용산역 에스컬레이터**

용산역으로 온 진미숙, 그녀의 손엔 남겨뒀던 토마토 씨앗 봉지가 들려 있다. 익숙했던 광장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버려 꾹 밟는다. 기차가 대기하고 있는 타는 곳 7번 출구. 출구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에는 두 줄로 서 꽉 차 있는 반면 반대 편 에스컬레이터는 텅 비어있다. ***(full shot)***

그곳에 끼여있는 미숙. 화면을 응시한다. (미숙이 앵글안으로 들어왔다 사라진다)

1. 앵벌이: 구걸을 뜻하는 노숙자 내 은어. [↑](#footnote-ref-1)